



예수간호동문회보

제 5 호

2002. 12

발행인:공순구 / 편집인:김강미자 / 발행:예수간호대학교 동문회 /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168-1(560-714) / TEL.(063)230-7730 / FAX.(063)230-7790



5회 동문 1학년 가관식 직후 사진입니다.

앞으로 회보의 사진은 졸업회기 별로 지속하여 게재할 계획입니다.

다음호에는 6회 동문의 사진이 될 것입니다.

예수간호대학교 설립인가

우리 모교가 지난 11월 16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4년제 대학으로 설립인가 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명은 「예수간호대학교」가 되며 입학정원은
100명으로 2003년도 신입생부터 모집하게 됩니다.

이 소식은 예수간호대학 재학생과 동문들은 물론 우리
나라 전체 간호계의 경사로 대한간호협회에서도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기도로 성원하여 주신 동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동문회장 공 순 구



우리대학교

2002년 11월 16일,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동안 모든 예간인의 숙원사업이었던 “4년제 대학설립인가”의 꿈이 마침내 실현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산 하나를 넘은 것 같은 안도감과 함께, 지나온 우리 대학교가 걸어온 52년의 시간을 돌이켜 보게 되었고, 그 역사속에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간호대학교가 4년제 승격을 할 수 있었던 기쁨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광과 기쁨을 그 동안 모교의 4년제 승격을 위해 국내외에서 애타게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기꺼이 내놓으려 했던 마음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학발전을 위해 소중한 모금을 하여주신 3천 5백여 동문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이 있기까지 큰 힘이 되어주신 이세웅 전 이사장님을 비롯한 Dr. Crane과 Dr. Seel 그리고 법인 이사님들께도 감사사를 드립니다.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이제 우리 대학교는 힘들게만 보였던 커다란 산을 모든 예간인이 하나가 되어 넘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며,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의 일부일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또 다른 산과 더 큰산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의 계획까지 예비하신 것을 믿기에 두렵지 않으며, 우리 동문들의 관심과 사랑이 존재하는 한, 어떠한 어려움도 관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간호대학교는 4년제 인가와 더불어, 희망찬 미래로 힘차게 도약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전문가와 법인 이사, 그리고 동문 등 각계 각층의 조언을 듣고 있는데, 현재까지 정리된 기본 정책들, 즉 우리 대학교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대학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들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수한 대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공학을 적용한 선진교수학습방법 등을 채택하고 국제적 감각을 가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둘째, 장단기 발전계획을 위하여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과 대학교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학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대학발전기금 모금위원회를 함께 구성, 그 운영을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셋째, 교수에 대한 업적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연구비 지원 등을 확대하여 수준 높은 교원 확보를 하여야 합니다.

넷째, 학생 및 교직원의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대학 조직 구성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Library Media Center 설립 등과 같이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 교육 및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는 디지털 캠퍼스를 구현하여야 합니다.

우리 대학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밑그림은 이상과 같습니다. 이 밑그림 위에 우리의 거대한 비전과 꿈이 하나씩 쌓여질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힘만으로 될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문 여러분의 기도와 의지가 함께 한다면, 바로 우리 앞에 와있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문여러분, 4년제 대학교 설립인가를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기쁨을 우리 동문들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 영광은 바로 헌신적인 동문애의 사랑을 보내주신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제, 예수간호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써 저는 여러분의 후배들이 여러분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간인으로써의 긍지를 세계에 두루 펼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 심혈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총장 / 양 광 자

2002년 11월 29일

예수간호대학교 총장 양광자

마 가 렷

정하숙
(제25회, 예수병원 ICU 수간호사)

우리 하나된 지 이미 오래
젊음을
고통을
이념을
마가렛 속에 묻은 지 이미 오래

저 계곡 속의
산,
물,
하늘처럼
우리 하나된 지 이미 오래

그러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눈빛으로
가슴으로
영혼으로
서로를 관통해 버린 지 이미 오래

그러기에
기억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마가렛 동산에 함께 서서
얼싸안고 싶은 지 이미 오래...

詩에 붙여

친구야!

마가렛 동산에 들어선

오래전부터 우린 하나였고

언제 어리서니

서로를 느낄 수 있었다

이젠 만나고 싶타

바쁘다는 핑계로 소식 한 번 주지 못한

한나하나 고귀하고 소중한 나의 친구들

정말 미안하구나.



25회 동기들과(뒷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필자)

차 례

- 1 / 제5회 동문
- 2 / 예수간호대학교 설립인가
- 3 / 우리대학교
- 4 / 시:마가렛
- 5 / 詩에 붙여
- 6~9 / 동문선교활동
- 10~11 / 동문탐방
- 12 / 해외취업(미국)
- 13 / 해외취업(영국)

- 14~15 / 동문소식(해외)
- 16 / 동문소식(예수병원)
- 17~18 / 동문소식(타지역)
- 19 / 모교소식
- 20 / 졸업 25주년 동문 재상봉
- 21 / 동문에게 올리는 글
- 22~23 / 모교 발전기금 현황
- 24 / 동문회 고문 및 임원

동문선교사역의 현장 - 필리핀

고은실 선교사(34회)

결혼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 중에 있던 어느 날, 어느 작은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태 신앙으로 자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니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나의 당연한 의무다'라는 작은 믿음으로 지원하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어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하여 감히 쓰임 받을 자격조차 없지만 그 누구보다도 저를 가장 잘 아시는 주께서 제게 가장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라고.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와 관련하여 전혀 예상치 못하게 - 기독교간호사로서 평소 장애인에 대하여 아무 편견 없이 사랑과 봉사 정신으로 다가갔던 나에게 - 어느 날 한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작곡한 곡을 가지고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에 출전하고자 반주자를 구하던 그 사람은 언젠가는 꼭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선 1차 합격, 2차 합격 그러나 본선 탈락으로 이제 나와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자 이번에는 영어공부를 도와 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닌 신학 공부를 위한 것이니 감히 거절할 수 없어 도와주던 중 그로부터 청혼을 받게 되었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기에 주저없이 내몸의 약함을 핑계로 '감당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괴로운지... 몹시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한 결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감사와 출복의 만남이라는 응답과 함께 기쁨과 확신이 솟아 올랐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전에 목사의 아내가 되는 것이 두려워 한 목사 후보생을 거절했던 나를 '시각장애인'

이라는 부담을 한 가지 더 안겨 목사의 아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남편에게 선교사로서의 소명감을 허락하시어 내게 없던 선교에 대한 사명감마저 더 요구하시었습니다. 급기야 오직 하나님 외에 아무런 후원 대책도 없이 큰 딸, 작은 딸 그리고 막내아들을 뱃속에 품은 채 자비량 선교사로 도전했던 1996년 8월 26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오직 순종하는 자세로 남편을 따라 필리핀에 오기에 이르렀습니다.



▲ 조인엽, 고은실 선교사 가족(아빠를 무척 자랑스러워하는 자랑스런 아이들인데요. 저는 그런 자랑스런 사람들에 묻혀서 무척 행복합니다.

남편 조인엽 선교사는 중학교 3학년 말에 급우의 실수로 시각 장애인이 된 이후 절망과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중 미국민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청주 맹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 곳의 교직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복음과 사랑의 빛을 갠 마음으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997년 3월 2일 지역 교회인 '감사교회(Thanksgiving Church)'를 개척하여 현재 40여명의 청장년과 약 30명의 어린이들이 출석하고 있으며, 같은 해 5월 1일에 '복된 바디메오 공동체(Blessed Bartimaeus Community)'를

시작하여 현재 15명의 시각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며 재활 훈련과 더불어 제자 양육을 받고 있으며, 같은 해 9월 1일에는 '동양 지압 안마원(Oriental Accupressure Clinic)'을 개원하여 그들에게 생계 대책을 마련해 주었고, 2000년 11월에 '바디메오 국제 선교회(Bartimaeus International Mission Incorporated)'라는 이름으로 필리핀 정부에 법인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의료혜택이 열악한 오지의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복된 바디메오 중창단'을 비롯한 훈련된 시각장애인 제자들과 교회의 청년들이 함께 선교사의 침과 지압, 의약품을 통한 의료 선교를 도우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디메오 국제 선교회'에서는 '시각 장애인 학교

(Vision Academy for the Blind)' 와 점자 및 녹음 도서관 그리고 중도 실명자들을 위한 재활 교육 및 복지관을 설립, 운영할 계획으로 필요한 재정 약 4억원을 위해 기도중이며 지난번 '복된 바디메오 중창단' 과 함께 한국 방문을 통해 모금된 금액 약 7천만 원으로 일단 올해 10

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 예장(통합) 총회 파송을 위한 특별 인선 및 훈련 기간 중 사역 소개와 더불어 특송 요청 받아 "우리는 하나 되어"를 부르고 있음



▶ 침, 안마 클리닉 앞에서 (아니 저 벽시계의 외모가 형편 없군요. 그러나 괜찮아요.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

동문선교활동



▲ 이곳 사람들은 물에 들어가, 즉 침례받는 것을 선호함.



▲ "감사교회" 창립 멤버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조인엽 선교사의 장례식 집례중 묘지앞에서 마지막 기도를...



◀ 주일 예배후 점심 식사 시간에 고은실 선교사의 식사 배급



▶ 오직 의료 선교(조인엽 선교사가 환자들에게 침 시술후 제자들이 인마하는 동안 옥수수를 먹으며 막간에 휴식을 취하고 있음)



◀ 지난 여름 한국 방문 중에 있을때 필리핀의 "감사교회"에서는 청년 멤버들에 의해 여름 성경학교를 성황리에 치루었음에 감사!



▶ 예수간호대학에서 조인엽 선교사와 '복된 바디메오 중창단'의 찬양 모습



◀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교 부지에서 진 입로를 넓히고 고르게 하기 위한 작업 (저는 말로 일하고 힘은 조인엽 선교사가...)

동문탐방

- 엄재정 박사 (전 모교학장님)를 찾아서 -



때 : 2002년 8월 29일

탐방자 : 박 정 순

예수간호대학의 산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랫동안 교수와 학장으로 재직하셨던 엄학장님. 17년의 세월을 미국에서 학업을 연마하며 조국과 민족을 한시도 잊지 않

고 봉사하시다가 1999년 사랑하는 조국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다. 오늘도 변함 없이 단아하고 너그러운 미소를 얼굴 가득히 머금고 구수한 순천사투리로 인터뷰에 응하셨다.

— 어떻게 예수간호대학과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내가 순천 매산여고를 다녔는데, 추화실(2회), 김은옥(3회) 언니들이 예수간호학교 선배였어요. 이곳이 믿는 기관이고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해서 왔지요. 와서 보니 나의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나는 배움의 욕심이 많았거든. 그래서 의대를 갈려고 다니다가 그냥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가서 신우염이 걸려 아파 눕게 되었는데. 도저히 다른 학교를 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묶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와서 간호학을 공부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특별한 사명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1958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예수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 후 기전여고에서 양호교사를 하는데 번마지 교장님이 학교에 와서 나를 도와 달라고 하셔서 오게 되었지요.

— 평생 공부를 계속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셨어요?

나는 배움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변교장님께 미국에 가서 공부를 더 하겠다 했더니, 내가 여기서 다 가르칠텐데 왜 미국 가느냐고 막아서 못 갔지요. 그러나 미련이 있어서 몰래 영어 시험을 쳐 놓고 추진을 했지요. 4년 간 당시 예수병원간호학교에서 선생으로 있다가 63년에 버지니아에 갔어요. Medical College of Virginia 간호대학에서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하며 그야말로 주경야독이었지. 나중에 시

카고 쪽으로 가서 일리노이간호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캐나다에 가서 공부를 마쳐야겠다고 계획했었는데, 변교장님이 다시 들어와서 나를 도와 달라며 빨리 들어오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시는데 어떻게 거역을 하겠어요. 할 수 없이 돌아왔지요. 변교장님은 1970년에 정년퇴직을 하셨고, 나는 그 후에 다시 미국으로 가서 1981년에 인디애나간호대학에서 Clinical Specialist course를 마치고 RN, BSN 졸업을 하였지요. 시카고로 옮겨가서 일리노이대학에서 지역사회 간호학 석사, 박사과정을 하게 되었네. 그곳이 지역사회간호학이 유명한 곳인데 참 어렵게 공부했지요.

결국에는 박사과정을 1997년 7월 23일에야 마쳤지(62세).

일리노이 간호대학 대학원 다닐 때 너무 힘드니까 백인도 많이 포기하는데, 나도 중간에 포기하려고도 했지만... 하나님이 도와 주셔서 마칠 수 있었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 가족소개를 해 주세요.

송목사님은 한국에서 광나루총회 신학을 마치고 미국 가서 장로교 목사고시에 합격하여 목사가 되셨어요. 베데스다 장로교회에서 시무 하셨지요. 한국에 나오셔서, 서울에서 「교사모」라고 교회와 사회를 돕는 목사의 모임인데, 회원이 50~60명이고 그곳에서 예배모임과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카고에 계신 어머님이 89세로 아직도 집안 일을 다 하실 정도로 정정하고 건강하시고요. 장녀 은하는 결혼해서 진경(5세), 진교(3세) 두 자녀가 있고, 사위는 맥케닉 엔지니어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미국회사에 파견가 있는데, 신앙심이 좋아서 마음에 들어요. 장남 정현은 IA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고, 막내 정욱이는 일리노이 대학원에서 컴퓨터전공하고 IBM에서 근무했는데 현재 미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아직 미혼이에요. 조카 창익이 은정이도 미국에서 잘 살고 있어요.

— 대학에 오래 계셨고 학장으로서도 재직하셨는데 후배들이 어떤 간호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기독교간호사로서 환자의 영과 육을 간호하는 전인 간호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아가서

영적인 것을 더 중시하는 간호사면 영, 육을 간호하는 기독교 간호사의 사명을 느끼고 더 잘 감당하게 될 것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 교회,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카고에서 한인들을 위해 살아라 하고 사회봉사에 밀어붙이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지. 석사를 마치고 나서 박사 과정을 계속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일을 시작했는지 몰라요.

내가 박사과정이 늦어지니까 목사님도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그 일이 인연이 되어 박사과정 하면서 정신질환자들을 참 많이 돕기도 했고, 칼부림하며 가족이 무서워하는 사람도 내 앞에 오면 양같이 순해져 가지고 말을 잘 들었어요.

미국에 와서 보니 의지할 곳 없고 불쌍한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 그냥 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한인서도움기센터를 시작하고 헌신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셨나 봐요.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가난하고, 의료보험도 없는 사람, 정신이상자, 영주권 없는 사람들이었지요. 가정파탄으로 갈 곳이 없는 사람까지 하루 5, 6백 명씩 몰려왔어요. 9만까지 만들어 부족한 영어 공부를 시켰는데 6만은 어린 학생들이었어요. 5명의 전문의가 있어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국 정착에 대한 인내와 필요하면 법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하고, 어린이 프로그램까지 했는데, 새벽예배 때 집을 나오면 저녁 10시까지 지치도록 일했지요. 매주 수요일 조국과 한인을 위한 기도 모임도 있었지요.



— 항상 한국으로 돌아오실 것을 꿈꾸며 사셨는데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1998년에 영구 귀국을 하였어요. 지금은 흥성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아침 8시 예배를 드리고 나면, 11시는 인왕교회의 맏인예배, 오후 2시 정신장애자 하나님의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영어 성경도 가르치고 해요. 가끔 비울빈 이주노동자 교회에서 영어 설교도 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한은 도울려고 해요. 그리고 주중에는 월, 화요일은 이대에서 근무하고, 목, 금요일은 예수간호대에서 보건의교육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대에서도 아동폭력, 여성폭력 등을 관계하고 있고 일본 규슈대학과 연계해서 직장에서 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는 무엇이며 대처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지요.

— 새롭게 발전한 대학에 오셔서 느끼신 소감은?

새 예배당과 강의실, 빌딩들이 많아졌어요. 교육시설도 굉장히 좋아졌구요. 양학장님과 교수님들이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학생수가 엄청 많아져서 발전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과거 명성을 날리던 때처럼 질 높은 간호실습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걱정도 되지요.

— 젊게 사시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늘 바쁘게 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항상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 위해 사는 것이예요. 갈수록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관리를 하지요. 미국에서는 어머니 덕을 많이 보았어요. 어머니가 많이 도와 주셨으니까 시간여유도 많았었지요. 집에서 내가 요리도 해 놓아야 하고 지금은 더 바빠졌어요. 영을 위해서는 매일 아침 성경 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기도하기를 힘쓰지요. 그리고 육을 위해서는 건강식을 먹으며,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니가 건강한 것 같아요. 건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 후배들이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말씀 해주세요.

신앙 안에서 기독교간호사의 역할을 잘하며,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 중에 발견하여 자기의 사명을 잘 알아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4년제 예수간호대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도임 동문이 소개하는 해외 취업 준비 : 미국

이도임 동문은 6회 동문이며 필라델피아에 거주하고 있다. 슬하에는 3자녀가 있으며 이들 모두 전문인으로
서 미국사회에서 변호사, 경제분석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미국인들조차 부러워하는 유복하고 성공적인
한국 이민 1세이다. 이 도임 동문이 American International Team Staffing회사의 한국모집 담당자로서 지난 5
월에 2차례에 걸쳐 모교와 예수병원에서 각각 미국 취업설명회를 실시하였는데,

취업설명회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미국 간호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이 상태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본다.
- 2) 미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분들은 American International Team Staffing회사의 한국모집
담당자인 이도임 동문을 통하여 서류를 할 수 있으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 3) 위 회사를 통하여 취업을 알선받은 후 취업이 된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준다.
 - ① 영주권취득에 필요한 법적 수속비
 - ② 미국간호사 자격시험과 TOFLE or TSE와 같은 시험 비용상환
 - ③ Review course fee 상환
- 4) 미국 간호사의 연봉은 간호사경력에 따라 다양하나 3600만-6000만원을 받는다.
- 5) 기회가 많은 미국에 동문들이 오셔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였다.

현재(2002년 10월)에는 위 기관에서 사직하시고 Free lancer로서 필라델피아 Mercy Group 산하 병원에서 필요한 200
여명 정도의 간호사 모집을 위해 해당재단과 타협중이다.

Mercy Group 산하 병원에 해외간호사 모집의 조건은

- 1) 근무시간 : 37½hrs/week
- 2) 영어가 부족한 경우 해당병원에서
영어교육 : 20hrs/week × 6개월(병원에서 수강비 제공)
- 3) 기숙사 제공
- 4) Visa 서류시 도움을 주겠다고 함.
- 5) 계약기간 : 2년

• 연락처 : 이 도 임
2029 Stone Ridge Lane
Villanova, PA 19085
U.S.A

정리: 양 복 순

이미혜 동문이 소개하는 해외 취업 준비 : 영국

이미혜 동문(33회)은 현재 영국 런던에 거주하며 영국에 취업을 위한 Agency를 운영하고 있다. 이미혜 동문이 소개한 영국 취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영국간호사 취업과정

- ① 영국간호사 면허시험은 없고 adoption course이 있는데 이 course 기간동안 이론과 임상이 병행되며 이 코스를 받는 병원에 따라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으나 인터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 ② 본 코스는 각자가 찾아야하는데 London의 경우 Workforce라는 곳에 등록을 하며 등록 후 지원자 차례가 되면 연결해준다. 이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각자가 찾아나서는 경우 소요되는 기간이 유사하다. 지원자가 코스를 런던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 위 기관을 경유하도록 되어있다.
- ③ 병원이 정해지면 짧게는 6개월부터 이 코스를 하게 되어있고 6개월 후에 평가를 받은 후 탈락자는 adoption 기간이 연장된다.
- ④ 이 코스를 마치면 거의 취직이 되며 Working visa가 주어진다.
- ⑤ 정식간호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한국출업간호사이면서 IELTS가 6.5이상이어야 하는데 임상경력이 2년 이상이면 취직이 유리하다.

2) Adoption코스를 입학하기 위한 영어 준비

- ① 코스 입학에 위한 준비
Adoption course에 들어가기 위하여 병원이 실시하는 I.E.L.T라는 영어 시험을 치루게 되는데 영어 듣기와 쓰기, 읽기 그리고 인터뷰(speaking)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루동안 시험을 본다. 이 시험을 위하여 특별반에 들어가 공부하는데 일반영어(General English)수준이 level 4이면 이 특별과정을 치루는데 무리가 없다.
- ② 영어준비를 위한 경비
General English 코스의 경비는 150-200만원이며 기간은 1년이며 I.E.L.T 과정은 3개월에 120만원정도이다. I.E.L.T시험은 특별과정을 입학하면서 원서를 내고 3개월과정이 끝나는 무렵에 시험을 보게 되며 시험장소는 시험을 신청한 장소에 따라 달라서 특별

과정을 학습하는 South Thames College를 비롯한 여러대학 혹은 언어학원에서 수강하게 된다.

3) 위 과정을 수강하면서 NMC(Nursing & Midwifery Council)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E메일이나 전화, 편지로 원서를 신청하며 지원서에 필요한 서류준비에 대한 설명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NMC주소 : 23Portland Place, London, W1B 1PZ
TEL) 0044-20-7637-7181,
Fax) 0044-20-7436-2924
Web site : WWW.NMC-UK.ORG

4) 영국 입국전에 원서를 위한 준비물

- ① 호적 초본과 간호사 면허증을 공증을 받아올 것
- ② 여권용 사진 10매를 준비해 오면 편리하다.
- ③ 기타 서류는 현지에서 해결한다.

5) 간호사의 사회적 위치와 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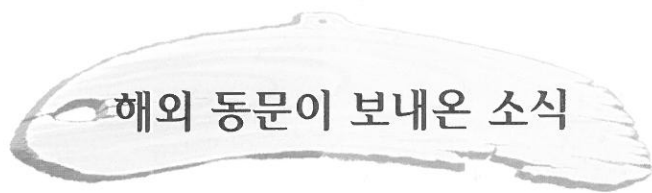
- ① 사회적 위치 : 영국은 왕이 여왕이며 나이팅게일은 영국출신으로 간호사의 사회적 위치는 매우 존경받는 직업이다.
- ② 급여 : 초봉은 기본급 18000파운드/년 + 수당 - 세금 공제 = 300만원, 미국과 연봉을 비교하면 비교적 적다고 느낄 수 있으나 휴가 병가 또는 보수교육과 같은 특혜가 많아 훨씬 좋은 조건임을 알게된다.
- ③ 영국의 간호인력은 부족한 상태이나 영어가 부족하고 자질이 없는 간호사는 고용하지 않는다.

6) Agency

영국, 런던에 거주하며 병원에서 근무해 온 이미혜동문에게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도움의 내용은 간호사취업에 필요한 일련의 정보를 제공하며 영어학교와 거처를 준비해주고 부업을 알선하여 생활비는 물론 현지 문화와 영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E-mail : leemihae@hotmail.com

정리 : 양복순



해외 동문이 보내온 소식

편집자주 : 미국 보스턴에서 임숙현(24회) 동문이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파란 하늘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가을, 어느 주일에 제가 섬기는 교회의 대학부 모임에서 미국에 온지 2개월 되는 대학원생이 “집사님 보스턴에 사신지 얼마나 되었어요?”라는 질문에 ‘보스턴에서 산지 15년 된단다’라고 대답하면서 ‘그래 15년이 되었구나’라며 스스로 놀랐습니다.

어느 날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천직, 간호사라는 전문직을 나의 생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 부모님은 서울에 사셨는데 저를 전주에 있는 예수간호대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세례도 받지 않았던 저를 매일 예배를 보는 철저한 크리스찬 대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세례증명서가 있어야 입학이 가능했는데 어느 목사님의 보증으로 입학을 허락 받았습니다. 그 때를 계기로 현재 보스턴에서 제가 참석하는 교회의 대학부를 맡고 있으며 해외선교사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니 감개무량하며 단지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었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저는 모교를 졸업한 후 예수병원 회복실에서 간호사로서의 전문직을 시작하였고 그곳에서 선배님들의 배려하심으로 풍부한 경험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경험을 쌓은 후 서울로 와서 고려병원(강북 삼성병원) 중환자실과 내과 특실 근무를 통해 간호사로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오자마자 저는 영어학원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자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간호학과 영어시험을 통과한 후 미국의 병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올 당시만 해도 취업알선 단체가 드물어서 물어 물어 현재 재직중인 병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병원에 단기 취업비자를 받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영어공부를 하느라고 했지만 짧은 영어로 환자와 의사 그리고 수 많은 사람들과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같이 근무하는 백인 할머니 보조간호사께서 저를 열심히 도왔습니다. 한번은 외래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병동으로 전화를 했는데 제가 알아듣지 못하자 정식간호사를 바꿔달라고 하기에 제가 정식간호사라고 말하자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바꿔라고 하기에 저 외에는 없다고 하자 전화를 끊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용감하게 외래로 가서 그 간호사를 만나 외국인 간호사와 일을 같이 하려면 알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줘야 하지 않겠냐며 말을 했더니 그 후로는 그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대해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막무가내였고 용감했는지 웃음이 납니다.

처음 미국 병원에서는 야간 근무를 배정받아 1년동안 근무하면서 영어를 더욱 연습하였습니다. 내과 외과 병동에 근무하며 일반 의료기기 등을 배우며 다시 간호학사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막무가내였고
용감했는지 웃음이
나옵니다.”

과정에 편입하여 공부와 근무를 병용하는 바쁜 세월을 보냈습니다.

미국간호학사 과정은 연구하여 발표하는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발표와 그룹 발표 등 여러모로 발표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유익한 과정이었습니다. 미국의 간호학 측면을 학습할 수 있게 된 보배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를 성실하게 하면서 미국생활에 점차적으로 익숙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새삼 느끼면서 저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책임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감독간호사모집의 광고를 보고 기도하며 그 자리에 지원하였는데 그 이유는 격주로 주말에 근무를 해야했던 스케줄이 한 달에 한번만 주말에 근무할 수 있는 자리여서 주일 날 교회를 한 달에 한번만 빠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미국에서 수간호사 경험이 없었고 외국인으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것 등을 볼 때 감독간호사 자리에 도전한 것은 언어도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나이 어린 그것도 외국간호사가 감독간호사로 승진한 것은 병원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독간호사직이 그리 호락 호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일년동안은 일을 익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느라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수 차례의 시행착오와 실수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성숙시켜 주었습니다.

감독간호사로서 직책에 익숙해지면서 대학원에 진학할 준비를 하였고 학교 선택을 놓고 망설이던 중 Nurse Practitioner Program을 지원하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독간호사로서 8년을 근무해왔는데 작년에 Director of Inpatient Service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는 외부사람들과 많은 교류가 있고 CEO 등과 같이 고위직 사람들과 긴밀한 상호교류를 해야하며 Public Speech등 많은 것을 요구하므로 지금도 이 단계에서 주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간호사는 전문직으로 인정하며 상당히 존중하는 직업입니다. 미국 RN들은 2년제 associate program 졸업자들로부터 BSN까지 다양하며 교육정도에 따라 수당과 승진에 차별을 둡니다.

현재 건강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미국간호사의 평균연령은 46.5세이며 미국의 간호사 자리에 간호사 충당해야할 비율은 전체 간호사의 10-15%입니다. 각주마다 주지사가 특별히 두어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미국은 '개방적이며 자유로운 민주의 체제로 외국인들에게 자신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많은 가능성의 나라'입니다. 많은 젊은 한국의 간호사들이 미국에 진출하여 간호학의 깊이와 전문을 넓힐 뿐만 아니라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를 지도해주신 모교의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내가 있도록 모든 계획속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경험한 미국은
'개방적이며 자유로운
민주의 체제로 자신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많은 가능성의 나라'
입니다”

미국 보스톤에서 임숙현 동문 올림
Lamuel Shattuck Hospital Boston 617-971-3114

예수병원 동문 소식

· 유봉옥원장(21회 차혜영동문 부군) 취임

2001년 7월 1일부로 예수병원 원장에 유봉옥원장이 취임하였다. 유봉옥원장은 21회 차혜영 동문의 부군으로 1974년 연세대의대 졸업, 1982년 예수병원에서 외과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잠시 과장으로 봉직하기도 하였다. 환자를 내 가족처럼 섬기고 직원 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듯 서로 존중히 여겨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한해 되기를 당부하였으며 예수병원 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

· 간호부장 이·취임

12회 동문인 김성란 간호부장이 36년 간 예수병원과 간호부를 위해 헌신하다 지난 2001년 6월 30일 명예스럽게 정년 퇴임을 하였다. 대한간협전북이사, 전북기독교간호사회, 임상간호사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간호발전을 위해 애쓴 공로로 자랑스러운 간호인상, 간호지도자상을 수상하였다. 후임 간호부장으로는 18회 류금주동문이 취임하여 간호의 질적 향상과 경천애인의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김 성 란(전간호부장)



류 금 주(현간호부장)

류금주 동문은 “너는 두려워 말라...”라는 이사야 43장 1~5절의 말씀을 확신하며, 우리 간호부가 기도온 삼백 용사의 횃불되어 타 오른다면 우리 병원은 과거보다 더 찬란한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으리라. 내 어찌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바랄 수 있으리요... 내 몫의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지고 가리라. “There is no problem in Jesus, Only plan” 가슴에 늘 새기고 싶은 말로 인사를 대신하였다.

· 이광자동문 정년퇴임

12회 동문인 이광자 간호과장이 36년간 열심히 봉사하신 예수병원에서 2002년 6월 30일자로 명예로운 정년 퇴임을 하였고 자랑스러운 간호인상도 수상하였다. 후임간호과장은 23회 동문인 전영신 수간호사가 임명되었다.

· 박정순과장 간협신보 주최 간호문학상 수기 부문 수상

대한간협협회 주최 제22회 간호문학상에서 17회 동문인 박정순과장이 수기부문에서 가작에 당선되었다. 「이 세상에 절대로 공짜는 없다」라는 제목의 수기에서 박정순과장은 박사 과정을 마치기까지의 보람있고 힘들었던 과정을 담담하게 그려내 호평을 받았다.

타지역 동문 소식

본 교를 졸업하고 각계 각층에서 모교를 빛내며 활동하고 있는 많은 동문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직업 의식, 능력으로 국내 굴지의 병원에서 인정 받으며 일하고 있는 몇몇 동문들을 소개하고자 한다.(가나다순)

·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 인재개발 지원팀 김수연 계장



김 수 연 동문(42회)

42회 동문인 김수연 계장은 1993년 서울 중앙병원에 입사, 응급실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2000년 3월 서울 아산병원 응급 전문간호사로 임명 받아 9월 응급 간호과정 1등 수상, 10월 미국 Brigham & Women's hospital 응급실 연수, Trauma Nursing Core Course 수료 및 미국 응급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재이다. 2002년 5월부터 인재개발팀 심폐소생술 전담 교육자로서 의사, 간호사, 진단 방사선사, 일반직 등 전직원의 CPR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교육, 관리하고 있다.

현재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과정에 있으며 시간이 나는대로 원내 예배 및 기독교회 주최의 봉사활동에 참여 하는 등 기독교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김수연 동문은 학창 시절의 아름다웠던 학교 분위기와 교수님들의 열정을 추억하면서 학교에서 진취적이고 깊이있는 사고를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간호사가 되도록 유도하는 교육이 되기를, 우리 졸업생들이 전공과목 뿐만 아니라 영어, 컴퓨터, 발표 능력 함양, 최신 논문 읽기 등 적극적인 삶의 태도로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 건양 대학병원 김현숙 간호부장



김 현 숙 동문(25회)

25회 김현숙 동문은 78년부터 20여년간 예수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면서 실무 능력을 인정받아 전북 임상간호사회 모범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01년에 건양대학 병원 간호과장으로, 2002년 8월부터는 간호부장으로 승진하여 모교를 빛내고 있다.

· 서울 아산병원 간호본부 교육행정 Unit 송용은 수간호사(과장대리)



송 용 은 동문(35회)

35회 송용은 동문은 1987년부터 89년까지 예수병원 회복실에서 근무하다 1989년 6월부터 아산병원 회복실, 내과계 및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아 2000년 부터는 내과계 중환자실 Unit Manager로 임명 받았으며 현재 병원 간호본부 교육 행정 Unit 초밤번 수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1남1녀의 어머니이자 이화여대 석사과정 학생으로, 사랑의 교회 집사로, 병원 기독교 봉사회 소속으로 의료 봉사 참여 및 CCC, 아가페 모임에 참여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송용은 동문은 우리 학교가 4년제 대학으로 발전하며 근거를 중시하여 간호실무를 지향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으며 졸업 후 취업을 하게 되면 모교

동문소식

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써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성실한 태도로 근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앞으로의 병원 추세로 보아 업무 기술과 친절 교육을 포함하여 임상 간호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과정이 필요하며, 우리 동문들이 어디에서든 꼭 쓰임받는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힘들더라도 전공 과목은 원서를 읽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업에 열중하기를 바라고 있다.



신향숙 동문(35회)이 가족과 함께

· 삼성 서울병원 건강 의학센터 신향숙 과장

35회 신향숙 동문은 1987년부터 1994년까지 예수병원에서 근무하다 1994년 3월 삼성 서울 병원에 입사하여 내과 외래, 진료 의료센터에서 근무하였으며, 1993년 3월부터는 건강의학센터의 코디네이터 팀을 운영하고 있다.

주 업무는 고정 고객(평생고객)의 건강검진 이력관리, CEO 전문 건강검진 관리, 암 의심자 관리, 생활습관개선 클리닉, VIP관리 등 건강진단 결과 상담 후 발생하는 상황이나 일부 특수층 고객의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이다. 가족으로는 배우자와 1남을 두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성균관 대학원 의료행정석사과정중이다.

신향숙 동문은 업무 진행중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을 자신에게 반복함으로써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회고하면서 언제나 고객 중심의 새로운 병원 문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자부심을 잃지 않고 내일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모교 소식

1. 4년제 대학 설립인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4년제 간호대학교로 설립인가 되어, 2003년도 신입생부터 4년제 학사 과정이 시작된다. 양광자 총장 취임식은 2003년 2월 8일에 있을 예정이다

2. 교환교수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코코모 간호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모교에서는 작년 8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정여숙 교수가 교환교수로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와 관련한 간호에 대한 강의와 토론 등 서로간의 학적인 교류를 하고 돌아왔다.

2002년 5월 16일 ~ 30일까지 코코모간호대학 교수 Linda Wallace, Lucy Tormoelhen, Mary Zody, Sue Symonds가 모교를 방문하였고 미국과 한국간호의 차이점에 대한 특강을 하였다. 또한 2003년 2월중에는 학생교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은숙 산학협력처장의 인솔하에 9명의 학생이 2주간의 프로그램을 경험할 예정이다.

3. 간호학 교과과정에 문제중심학습(PBL) 방법을 도입하여 전 교수가 2개 package를 개발하여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교과를 운영하고 있다.

4. 개교기념행사

개교기념예배에 동문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금자 교수(16회 동문)가 근속 30주년 표창을 받았고, 24회 동문들이 25주년 재상봉을 맞이하여 모교를 방문하여 발전기금을 전달하였다.

5. 통합교과과정 워크샵

수준높은 간호교육을 모색하기 위한 통합교과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전 교수들은 지속적인 워크샵을 하고 있다.

6. 연구년차 도미

정정숙 교수(23회 동문)가 연구년을 맞이하여 New York Stony Brook대학에서 2002년 8월부터 1년간 연구할 계획이다.

7. 의료봉사 파송 예배

지난 12월 6일 Seel chapel에서 황성자(16회 동문) 교수의 의료봉사 파송 예배가 있었다. 황성자 교수는 모교에서 특별히 연구년을 부여하여 서울 명성교회에서 후원하여 건립되는 이디오피아 병원에서 2003년 2월말 부터 1년간 간호부서 책임자로 봉사할 예정이다.

8. 간호사 국가시험 날짜 변경 서명운동

12월 15일 일요일에 실시예정인 제43회 간호사 국가시험일이 일요일임에 따라 주일성수가 어긋난 일을 중단케 하기 위해 3학년들이 시험포기 서명을 하고, 대한기독교간호사회와 더불어 동문들과 모교 교직원, 학생들이 요일 변경 요구를 하는 서명을 대정부기관인 국시원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다.

졸업 25주년 동문 재상봉

지난 6월 1일 개교 52주년 기념예배에 졸업 25주년을 맞이한 24회 동문들의 재상봉이 있었다.

24회 동문들은 오랫동안 모교를 방문한 기쁨과 감격을 후배 재학생들과 나누며 모교에 대한 사랑과 긍지를 표현하였으며 특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들은 예배 후 발전한 모교를 돌아보며 기뻐하였고 보고싶었던 학우들과 옛날을 추억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재학생들은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갖게 되었다고 한다.

24회 동문들은 대학발전기금을 모교에 전달하였다.



동문님들께 올리는 글

전 영 신

(23회, 동문회 장학기금 회계)

친 애하는 예수간호대학 동문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안녕하셨는지요?

동문회 장학회 회계 23회 전영신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저희 대학은 1950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 의해 창립된 이래 반세기 동안 명실공히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간호교육 기관으로 자랑스럽게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2001년까지 총 48회 걸쳐 2,659명의 전문 기독교 간호사를 배출하여, 수많은 동문들이 국내·외에서 그리스도 사랑과 진리의 교훈에 근거하여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빛나는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아울러 여러 선·후배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개인주의, 인본주의, 물질만능시대에 살고있는 우리로서는 후진들에게 철저한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한 전문인을 많이 양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문의 한 사람인 저 또한 학교를 통해 받은 사랑이 너무 컸음을 이제야 자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이 엄습하여 감히 이 글을 올립니다.

다름 아니오라 저희 대학의 장학금제도의 내력을 살펴보면 학교 내에 장학위원회를 두어 장학금 예산 및 정책을 세우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자격, 수혜 내용 등을 심의 결정한 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중 동문회 장학금은 년 400만원으로 너무 작은 부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동문회장학금은 전체 자산이 1억도 채 되지 못한 8천여만원으로 동문회 회계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앞으로도 저희 대학이 수많은 전문기독교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이 땅에 사명감을 가지고 눈부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선후배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시기를 감히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동문 여러분!

부디 허락하시는 대로 모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모아 주시기만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동문 여러분과 가정, 그리고 경영하시는 일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교 발전기금

4년제 대학 발전기금 모금현황

2002년 8월 24일 기준

4년제 대학설립을 위한 기금마련의 일환으로 1999년 8월부터 모금운동이 시작되어 2000년 10월 25일까지 모금운동에 참여한 동문의 이름은 예수간호대학 동문회보 제4호(2000. 11)기재되었으며 그 이후에 계속 모금에 참여한 동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모금기간 : 2000년 10월 26일~2002년 8월 24일

번 호	회 기	성 명	발전기금
1	1회	김 정 숙	200,000
2	2회	공 순 구	2,150,000
3	4회	양 순 복	2,150,000
4	5회	엄 재 정	1,000,000
5	7회	염 정 임	500,000
6	12회	노 춘 자	200,000
7	19회	송 국 희	200,000
8	22회	김 옥 숙	100,000
9	27회	정 명 휘	1,000,000
10	32회	최 미 숙	100,000
11	32회	박 복 임	200,000
12	32회	김 해 심	100,000
13	33회	김 미 숙	100,000
14	33회	이 미 혜	250,000
15	34회	박 현 원	100,000
16	35회	이 명 진	100,000
17	36회	문 영 희	100,000
18	38회	김 명 옥	100,000
19	40회	이 은 아	100,000
20	40회	정 의 영	250,000
21	41회	김 한 나	100,000
22	41회	박 은 아	100,000
23	41회	송 은 정	100,000
24	41회	황 선 애	100,000
25	42회	소 윤 희	100,000
26	42회	황 영 희	100,000

번 호	회 기	성 명	발전기금
27	43회	노 경 희	100,000
28	43회	곽 연 주	100,000
29	43회	이봄맞이	100,000
30	43회	안 수 진	100,000
31	43회	장 근 아	100,000
32	43회	고 순 희	100,000
33	43회	김 수 정	100,000
34	43회	김 보 경	100,000
35	43회	오 찬 숙	100,000
36	43회	김 예 순	100,000
37	43회	송 선 옥	100,000
38	44회	남 영 미	100,000
39	44회	주 지 예	100,000
40	44회	정 진 선	100,000
41	44회	조 명 신	100,000
42	44회	김 선 미	100,000
43	44회	전 민	100,000
44	44회	김 지 연	100,000
45	44회	문 은 주	100,000
46	45회	고 성 미	100,000
47	45회	김 이 순	100,000
48	45회	박 미 옥	100,000
49	45회	박 병 순	100,000
50	45회	오 자 영	100,000
51	45회	전 지 영	100,000
52	45회	이 아 영	100,000



번 호	회 기	성 명	발전기금
53	45회	이 정 희	100,000
54	45회	김 희 정	100,000
55	46회	송 경 주	100,000
56	46회	김 난 희	100,000
57	46회	임 은 형	100,000
58	46회	이 정 경	100,000
59	46회	백 문 아	100,000
60	46회	조 경 원	100,000
61	46회	최 정 진	100,000
62	46회	오 은 미	100,000
63	46회	이 현 선	100,000
64	46회	김 영 주	100,000
65	46회	허 은 실	100,000
66	46회	박 자 영	100,000
67	46회	성 입 분	100,000
68	47회	갈 은 영	100,000
69	47회	강 미 화	100,000
70	47회	강 정 화	100,000
71	47회	유 자 현	100,000
72	47회	조 선 영	100,000
73	47회	이 유 리	100,000
74	47회	김 효 진	100,000

번 호	회 기	성 명	발전기금
75	47회	유 은 정	100,000
76	47회	이 우 금	100,000
77	47회	오 명 윤	100,000
78	47회	김 미 진	100,000
79	47회	윤 순 상	100,000
80	47회	이 정 민	100,000
81	47회	전 숙 희	100,000
82	47회	강 금 정	100,000
83	47회	김 현 진	100,000
84	47회	최 은 영	100,000
85	47회	박 미 정	100,000
86	47회	주 미 라	100,000
87	47회	조 미 란	100,000
88	47회	조 선 영	100,000
89	47회	최 수 미	100,000
90	48회	김 수 연	100,000
91	48회	김 자 영	100,000
92	48회	김 정 화	100,000
93	48회	정 남 례	100,000
94	48회	김 은 주	100,000
95	제23회	동문재상봉	3,000,000
96	제24회	동문재상봉	3,000,000

총액 ₩22,400,000

... 양광자 총장 취임식 및 총동문회 ...

2003년 2월 8일(토)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예수간호대학교 설립인가를 축하합니다.



예수간호대학교 동문회 고문 및 임원

임기 : 2002. 6. 1 ~ 2004. 5. 31

1. 고문

	성 명
전학장	엄재정(5회)
현총장	양광자(6회)
동 문	김정숙(1회)
동 문	박해옥(1회)

2. 임원

	성 명
직전회장	양순복(4회)
회장	공순구(2회)
제1부회장	김성란(12회)
부회장(전주)	이인수(4회)
	이준례(5회)
	박순옥(6회)
	이광자(12회)
부회장(서울)	고유근(6회)
부회장(광주)	김연자(6회)
부회장(대전)	이 라(8회)
부회장(강원)	오은자(11회)
부회장(경상, 대구)	최학례(15회)
총무	김금자(16회)
	유금주(18회)
서기	김강미자(15회)
	박정순(17회)
회계	김봉선(20회)
	전영신(23회)
	김은숙(25회)
감사	정여숙(22회)
	김옥숙(22회)
간사	양복순(26회)

.....

편집	김강미자
위원	박 정 순
	김 봉 선
	윤 진
	양 복 순